

# 『 삼광 구역 공과 』

일시: 2020년 2월 16일 (셋째 주일)

성경본문 : 로마서 5장 1-11절

설교제목 :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구원의 결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1절)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shalom**’입니다. 그 뜻은 매우 풍성한데, 대략 **평화, 평안, 안정**이란 뜻을 가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가진 특징인데, 에이레네, 샬롬은 오직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나오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므로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맛보거나 누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리는 평안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이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11절) ‘**즐거워하다**’로 번역된 ‘**카우카오마이**’는 ‘**즐거워하다**’의 의미도 있는데, ‘**자랑하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카우카오마이)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서 환난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3절) 본문에서 **환난**으로 번역된 ‘**둘립시스**’는 외적 환경에서 생기는 환난입니다. 이 환난은 외부적인 압박, 억압, 괴롭힘에 의한 환난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궁핍과 억압, 육체적 핍박과 죽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3-4절) ‘**인내**’로 번역된 ‘**히포모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힘**’입니다.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연단**’으로 번역된 ‘**도키메**’는 사물에 쓰일 때는 인정받는 품질을 나타내고 사람에게서는 훌륭한 품성이나 인격을 나타냅니다. 환난없이 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품질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환난은 성화의 중요한 도구입니다. 환난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환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환난 속에서 인내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품질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소망**’으로 번역된 ‘**엘피스**’는 항상 좋은 것만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2절)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과 그분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가 될 때, 부끄럽지 않게 됩니다.(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에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본문에 ‘**부끄럽게 하다**’는 ‘**카타이스퀴노**’는 ‘**모욕을 주다**’는 의미인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모욕을 당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과 그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도록 해서 하나님 심판대에 앞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흔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자체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실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덧붙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

음에 쏟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5절) 성령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6절에서 ‘연약할 때에’는 8절의 ‘죄인되었을 때에’, 10절에 ‘원수되었을 때에’란 말씀처럼 우리가 죄에 대하여 무기력할 때,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무조건적 은혜와 공휟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난의 크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6-10절)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38-39에서 다음과 같이 확신에 찬 말을 전합니다. **롬 8:38-39**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엇으로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확증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묵상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없는 평안, 예배가 무너진 평안, 하나님없는 평안은 그리스도인에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 백성의 진정한 복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예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이란 환경과 조건에 반응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근거한 확신과 평안으로 날마다 예배와 기도와 묵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 ※.말씀 나누어보기

- 1)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1절) ‘화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히브리어는 ‘샬롬’입니다. 화평이란 단어가 가진 특징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2)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3) 하나님과 화목한 그리스도인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적용해 보기

- 1) 이번 주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 2) 구원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에이레네, 샬롬)을 누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인지 구역원들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 3) 오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내가 달라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